

▶ 가족·아동

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 및 부적응행동

류 현 강 (전남대학교 대학원 아동학 전공 석사)

이 숙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기질의 기질에 따라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 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이 남녀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를 모색해보고, 가정,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이 부적응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유아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 5개 기관을 선정하여 총 217명의 유아의 어머니와 담당교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도구는 모의 양육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유우영(1998)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유아의 기질에는 김민아(2004)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였다. 또한 유아의 부적응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박현주(2004)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일반적 사항의 분포를 파악하고자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외에 t-검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Duncan의 다중비교검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모의 양육태도를 상중하로 나눈 집단에 따라 유아의 부적응행동의 하위 변인인 불안, 위축, 의존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기질에 따른 부적응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기질 하위 요인인 활동성과 적응성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활동적일수록 산만 행동을 보였으며, 적응력에 따라 불안, 위축, 산만과 공격적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부적응행동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부적응행동 총점에 대한 예측변인으로는 성별, 활동성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고, 위축행동은 적응성만이, 의존은 과보호적 태도가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산만은 성별, 활동성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고, 공격은 성별, 적응성, 활동성 순으로, 충동은 성별, 활동성과 적응성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예측변인을 살펴봄으로써 교사나 부모들에게 유아의 적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와 기질 외에 유아의 부적응행동을 예견하는 다른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